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돌아온 탕자

## 탕자 주일

성 바실리오스 교백자, 성 끼라나 순교자  
제6조 /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탕자 주일 시기송 / 220, B 270
- 사도경: 고린토 전 6, 12-20 / 봉독서 418
- 복음경: 루가 15, 11-32 / 133, B 8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 포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화를 내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엄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격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피리오스 성인은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한 후,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용한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화가 치밀면,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과격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좋은 생각과 말로 대하면,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과 태양의

우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태양은 서로 자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며 싸우다가 결국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는 누가 목동의 겂옷을 벗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심판으로 삼고 내기가 시작됩니다. 바람은 세찬 바람을 불어대서 목동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찰수록 목동은 추운 바람에 맞서 더욱 옷을 조여 매며 버팁니다. 그때 태양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비추자, 목동은 따뜻함을 느끼며 스스로 겂옷을 벗습니다. 태양은 바람에게 말합니다. “보았지, 우리 둘 중 누가 더 강한지?” 성 포르피리오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가 아니라 오직 친절함을 통해서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한국대교구 사업 중심 주제에 대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말씀

☞ 지난 주 주보에서 계속

초대 교회의 선교 방법에 대한 슬로건을 요약하면 : “각자는 한 사람씩 그리스도께 데리고 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세기에 걸쳐 반복되어 왔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보면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거대한 경제적 후원과 광범위한 매체에 기초한 조직적인 선교를 통해 확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만 주체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당시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무역 여행을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로마로 떠난 그리스도인은 무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동료에게 전해주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고린토 전 9,16)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그들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식 릴레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은 평화롭고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손에서 손을 통하여 전해졌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통하여 2천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직자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의 혈육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에게도 그리스도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도 디모테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비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디모테오 전 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같은 일터에 있는 사람들, 다종교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 정교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바로 그들이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빛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는 사도 바울로께서 첫 번째 전도를 위하여 떠난 여행이 같은 유대인들을 찾아 떠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교를 하는 농부인 우리는, 우리가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이야말로 진리의 말

☞ 3면으로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짧은 이야기

## 하느님과 만날 약속



예전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하던 한 은둔 수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내일, 산 정상에서.”라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다음 날 수도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따라 걸던 중 갑자기, 가시덤불 속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하느님과 약속이 있어요.” 수도자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더 가다가 그는 아픈 아기를 안은 채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산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빨리 걸었다. 그러나 길이 급하게 굽어지는 곳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의 한 노인이 물을 담은 자루 하나를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부탁이니 가서 저기 조금 아래쪽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제 물 자루에 좀 채워 주십시오.”

“어르신, 인내하세요. 저는 하느님과 약속이 잡혀 있어서 늦으면 안됩니다.”

드디어 수도자가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과 만나기로 했던 오두막집 문에는 이렇게 적힌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있었다.

**‘내가 이곳에 없음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나는 네가 이리로 오는 길에 돕지 않고 지나쳐버린 이들을 도우러 간다.’**

▶ 아타나시아

☞ 2면으로부터 계속

쓰를 뿌릴 수 있는 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해서, 그들도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시다!》라는 올해의 주제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든

선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는 열정을 갖고 한 명의 제자, 가족, 친구, 혹은 동료 그리스도에게로, 성당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 정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입니다.

## 소 식

### 대교구

■ 한국 신데즈모스 수련회 ▷ 오는 3월 4(금)-6일(일)까지 춘천 사회복지관에서 한국 신데즈모스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데즈모스 회원께서는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성당에 신청해주시십시오.

■ 소조스 야누디스 교우님 성화 강의 일정  
▷ 소조스 야누디스 교우님은 한국에 있는 성당들(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성 막심 소성당, 성모님 소성당, 용미리 주 부활 성당, 가평의 구세주 변모 수도원 성당, 팔랑리의 성 안드레아 성당, 춘천 성 보리스 성당,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등)의 성화 벽화 작업을 해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한국을 사랑하시는 소조스 야누디스 교우님이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화 강의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실 예정이십니다.

성화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31일까지 한국 정교회 대교구청으로 강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개별 통지합니다.

- 성화 수업 장소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 지도 교수 : 소조스 야누디스 교수님
- 성화 수업 날짜 일정(초급 과정은 세 번 같은 과정임)
  - 5월 16일-20일 : 초급 과정
  - 5월 23일-27일 : 초급 과정
  - 5월 30일-6월 3일 : 초급 과정
  - 6월 6일-10일 : 중급 과정
  - 5월 21일, 5월 28일 토요일 : 성화 스

### 캐치 강의 예정

#### ■ 수업 시간표

- 7:30 ▷ 아침 기도 / 8:30 ▷ 아침 식사
- 9:30-12:30 ▷ 수업
- 13:00-14:00 ▷ 점심 식사
- 14:00-15:00 ▷ 자유 시간
- 15:00-18:00 ▷ 수업
- 18:00-19:00 ▷ 저녁 기도
- 18:00 ▷ 저녁 식사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주일학교 진급식 ▷ 오늘 성찬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꼭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겨울 수련회 ▷ 지난 21(일)-22(월)에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섬 비진도에서 학생 15명과 교사 및 자원 봉사자 10명이 참여하여 '기도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놀이, 체험을 통해 소중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1년간 교육 방향과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은총을 베푸신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을 드리며 축복해주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 감사를 드립니다.

### 주간 예식

- 3월 5일 영혼 토요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념하는 추도식에 풀리 바를 준비하여 모두 참여합니다.)

